

유럽 韓國學會에 다녀와서

成 耆 說

(仁荷大 國語教育科)

筆者가 ‘유럽韓國學會(AKSE :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86년부터였다. 筆者가 근무하고 있는 大學에 韓國學研究所를 창설할 계획을 세우고 그 기념 사업으로서 韓國學國際學術會議을 개최하기에 앞서, 유럽의 韓國學者들도 招致하고자 하여 事前探索차 유럽에 갔었던 것이 그 契機이다. 그 해의 AKSE는 西獨의 보룸大學에서 主管하여 개최되었다.

그후 筆者는 1988년 4월에 和蘭 Leiden 大學, 1989년 4월에는 英國의 London 大學에서 열린 AKSE에 각각 참가하여 口碑說話를 主題로 한글을 두 篇 發表하였다. 이번에 다시 폴란드의 바르샤바大學에서 개최되는 제14회차 AKSE에 論文發表차 참가하게 되었으니 네번째가 되는 셈이다. 더구나 이번 大會가 東歐圈에서 처음 열리는 學術會議이기에 出發 전에는 가벼운 興奮마저 느꼈던 것도 사실이었다.

회의 일정은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의 4박 5일간이었다. 4월 17일 서울을 떠나 翌日인 18일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하여 하루를 쉬고 다시 19일 아침 11시 비행기로 폴란드 바르샤

바로 향하였다. 離陸한 지 1시간 반 정도 되었을까, 맑게 개인 바르샤바空港에 내린 것은 現地 時間으로 正午 조금 넘어서였다. 우선 기관단총을 휴대한 軍人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비행기 트랩까지 마중나온 버스를 타고 공항 청사까지 갔다. 우선 여권 심사 관문에서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싶을 정도로 한 사람을 처리하는 데 지리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다음 곧 비행기에서 내린 짐을 찾아 손수레에 얹고 보니, 現地에 進出한 우리 S중합상사의 마크가 붙어 있지 않은가! 우선 異國에서 만난 친구처럼(筆者는 이 회사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 반가웠고 어떤 야릇한 금지심을 느꼈다. 다음에는 稅關檢査였다. 굉장히(?) 아름다운 美人이 稅關員인데 우리 앞에 있던 外國人 靑年들 20대로 보이는 4, 5명이 까다롭게 짐 조사를 받고 있었다. 우리는 그 뒤에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짐 조사하던 그 女稅關員이 뒤에 서 있는 우리를 보더니 짐을 보자는 말도 없이 그냥 나가라고 손짓을 하여 가방은 열어보이지도 않은 채로 밖으로 나갔다(나중에 들은 바로는 麻藥 檢査가 매우 森嚴하다 한다).

空港 밖에는 바르샤바大學 관계자들이 마중 나와 있었고, 一行이 모두 모이자 待期하고 있던 커다란 文字로 LOT 라고 그려진 폴란드 國營航空會社의 관광 버스에 태워 市内로 향하였다. 外國에서 온 學者들을 두 개의 호텔로 分散 投宿하게 했는데, 筆者가 저정받은 곳은 空港에서 그리 멀지않은 바르샤바市 郊外쪽에 위치한 Novotel Hotel 이었다. 대학의 기숙사 식으로 지은 3층짜리 블록 建築같은 느낌이다. 북도 양쪽으로 객실이 나열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아마 개혁이 일기 전의 전국대의원회가 개최될 때 의원들을 일괄 수용하던 곳이 아니었나?”하는 말을 하였다. 호텔에서서 꼭 갖추어야 할 장식도 일체 안 보였기 때문에 그 말도 그럴 듯하였다. 짐을 풀자 곧 조금 전에 내린 버스를 타고 다시 大學으로 향하였다. 市内의 大學까지 가는 길은 양측에 古色蒼然한 17·18세기 형태의 建築物과 드문드문 있는 現代式 建物, 그리고 새로 建設中인 建築物 現場들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市内 큰 길가 곳곳에 綠地帶가 널적널적하게 마련되어 있어 숲통이 확 트이는 것같은 시원한 느낌을 주었다. 얼마 후 大學의 博物館이 있다는 Rectorate 빌딩 2층에 차려 놓은 大會 事務室에 안내되었다. 네번째 참가하는 筆者로서는 유럽 韓國學者들 중에는 번번히 혹은 두세 차례 만나 본 얼굴들이 벌써 상당히 모여 있었다. 그들은 오랜만에 다시 만난 기쁨으로 서로 일싸 안으면서 반가운 人事들을 하느라 법석이었다. 오후 5시부터는 welcome party 라 하여 간단한 음료수를 들면서 바르샤바大學 總長의 歡迎辭와 AKSE 會長의 謝辭가 節次上으로 끝나고 다시 오랜만에 相逢하는 반가움들을 交歡하였다. 오후 7시부터는 大學에서 버스로 5분 거리에 있는 ‘Pod Retmanem’이라는 食堂에서 저녁을 함께 들었는데, 古典의인 雰圍氣가 물씬 풍기는 室内였다. 西유럽에서도 볼 수 있는 古典

的인 意匠으로 치장되어 있었는데 壓卷이라 했다.

여기서[잠시]폴란드에 관하여 言及하고 넘어가야겠다. KOTRA 현지 책임자인 金壯均씨에 따르면, 改革 후 國名을 ‘폴란드共和國’으로 변경한 이 나라의 면적은 31.3만 km²로서 東歐圈에서는 가장 큰 나라이다. 人口가 3,793만 명(수도 바르샤바는 180만 명)에 달하며 슬라브系인 폴란드族으로서 라틴語 系統의 폴란드語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宗教는 全人口의 90%가 로마 카톨릭이라 한다. 敎皇 바오로Ⅱ세가 폴란드人으로서 非이탈리아人으로는 450년만에 뽑힌 敎皇인 것은 너무나 유명하다. 그가 敎皇이 된 후 새 차레나 故國에 돌아와 全國을 누비며 政府를 酷毒하게 批判한 影響으로 폴란드의 改革에 부채질을 하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北韓과는 이미 1948년 10월에 修交가 이루어졌으나, 韓國과는 작년에서야, 즉 1989년 11월 1일에야 修交가 성립된 처지다. 改革은 하였으면서도 아직 過渡期를 겪고 있음인지 經濟事情이 엉망인”듯싶다. 貨幣單位는 zloty 인데 미국 달러와의 換率이 계속 切上되어 滯在中에는 1:9,310이었다. 美弗을 기준으로 하면 韓國貨幣와의 比率은 대체로 1:13.3이다. 現地の 韓國 留學生을 단났는데 한달 生活費가 美 80弗(방세 50불, 식대 30불)로 해결된다고 했다. 學制는 初·中·高·大를 3단계로 나누어 8·4·5로 구성되어, 8년에 우리의 중학교, 4년에 고등학교, 5년에 大學課程을 마치는 것 같다. 碩士課程은 없이 大學 5년을 마치면 곧 博士課程에 進學할 수 있다고 한다. 法定公休日은 연간 9일에 불과(新正·復活節 2일·勞動節·五旬節·獨立紀念日·만성절·聖誕節 2일)하다.

이튿날 4월 20일 아침 9시부터 AKSE發表會가 시작되었다. 장소는 前日 welcome party 가 있었던 Rectorate 빌딩 2층의 한 講義室에

서였는데 12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넓이이다. 이번大會에는 南北韓을 비롯하여 영국·미국·프랑스·네덜란드·오스트리아·스웨덴·스위스·캐나다·소련·헝가리·폴란드 등의 나라에서 약 110명쯤 참가하였고, 發表者는 31명, 司會者가 12명으로 配定되어 있었다(오전·오후를 다시 두 팀으로 나누어 각각 司會者를 두었다). 이들은 이大會의 성격인 歷史·語學·文學·藝術의 4部門으로 나누어 主題別로 열띤 토론을 하였다. 한편 韓國에서 韓 黃秉冀 梨大教授의 伽倻琴散調를 함께 鑑賞하기도 하였고, 韓國映畫 ‘물레야 물레야’를 Kultura 극장에서 관람하기도 하였다. 北韓은 작년大會부터 참가하고 있는데 그들의 태도는 작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고 짝지어 행동하는 일도 별로 없이 발표장 밖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사진도 함께 찍으며 담소도 나누었다. 그래도 역시 金日成벉지는 달고 있었다.

또한大會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北韓과 蘇聯學者와의 토론이었다. 北韓의 學者 정성철(철학)이 ‘주체 사상에 따른 조선에서의 철학 사실의 발생과 발전’이라는 주제 발표를 마치고—이것은 원래 예정에 없었던 것—모스크바大學의 미하일 차코수가 의문을 제기하였다. 정성철의 “고대 조선에서부터 唯物論 사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근거로 檀君神話·解慕漱神話を 들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學問과 神話を 구별하지 않는 것은 非科學的 態度라고 비판하고, 北韓의 주체 사상이 과거 20년간 學問으로서의 發展을 度外視하며 일종의 道그마化되고 있다고 전제, 그 예로써 理氣 논쟁에서 氣는 唯物論, 理는 觀念論으로 劃一化한 것은 誤謬이며, 氣는 唯物論뿐 아니라 觀念論으로도 될 수 있다고 反駁한 장면이었다.

한편, 發表를 申請하여 順次까지 결정하였음에도 不參者가 몇 명 있어서 進行에 혼선이 일어나 發表順序가 뒤바뀌기도 했다. 筆者의 경우

원래는 끝날일 23일 오전에 있을 예정이었으나, 첫날 오전 發表者의 不參으로 그 자리로 경충되어올라 발표를 마쳤다. 이러한 사정으로 筆者는 뜻하지 않게도 폴란드의 慶州라는 Kraskow와 나치의 猶太人 大虐殺로 유명한 아우슈비츠를 찾아 볼 기회를 갖게 되었다.

몇 차례나 이大會에 참가하면서 생각하게 하는 것은 유럽에서의 韓國學의 位相이었다. 그 研究機關은 거의가 大學에 附屬된 東方 혹은 東洋學研究所의 小分科로, 심지어는 아프리카·아시아研究所의 所屬으로 位置하여 있는 실정이다. 그것도 獨立語學系로서보다는 日本·韓國系 言語로 共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實相은 차츰 시일이 지남에 따라 독립된 韓國語系로 분리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아직도 그 뚜렷한 實體는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1988년의 올림픽 이후 韓國의 世界的 位相이 浮上되는 한편 國力의 伸張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임이 틀림없다. 더구나 東歐에서의 韓國學은 그동안 北韓의 絕對의 影響下에 자라는 實情이던 것이 1977년 AKSE의 創立과 함께 西유럽 學者들과의 접촉과 최근 東歐諸國의 改革과 더불어 韓國政策과 合致되어 偏頗的 韓國學研究에서 벗어나려는 동부림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이번에 대거 7명이나 참가한 蘇聯學者들의 경우도 事情은 같다. 그들은 거의가 北韓에 留學·滯留하면서 韓國學을 시작하였다가 AKSE 창립 후 韓國 學界와 접하면서야 비로소 學問으로서의 韓國學方法論 軌道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유럽 韓國學의 水準은 國內에 비하여 알다고 본다. 그러나 특기할 것은 몇몇 학자들의 경우 相當한 水準의 漢文諷解力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國內에서도 특히 古典文學研究에서 漢文典籍理解力의 필요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現實을 감안할 때 매우 괄목할 일이다. 그

리고 그들 중 상당 수가 韓國에 滯留하여 大學에서 研究를 하든가 혹은 地方에 몇 년씩 머물면서 몸으로 부딪쳐 가며 韓國學에 沒頭한 學者들이라는 점이다. 이런 學者들일수록 本國으로 돌아가 훌륭한 韓國學의 業績을 쌓은 人士들로 프랑스의 Bouchez, 네덜란드의 Walraven 교수 등이 그들이다. 餘談이지만 英國의 某교수는 韓

國人 女性과 결혼한 學者인데 夫婦가 함께 韓國學 관련의 論文을 수시로 發表하여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외에도 AKSE 會員 중에는 韓國人 女性과 결혼한 學者가 꽤 있다. 직접 묻지는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韓國人 女性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韓國學에 興味를 가지고 공부하게 되었다는 경우가 태반인데 매우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였다. *